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229-254  
<https://doi.org/10.29212/mh.2021..118.22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최고경\*\*

1. 서론
2. 약포 정탁의 전쟁시와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3. 약포 정탁의 전쟁인식이 지니는 의미
4. 결론

## 1. 서론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은 조선에 사상 초유의 피해를 가져왔던 임진전쟁을 겪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주하게 노력한 인물이다. 이에 정탁에 대해서는 그의

---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쟁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순신을 옥중으로부터 구명한 일이 처음 학계에 소개되고,<sup>1)</sup> 그 뒤부터는 내의원 제조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고 분조에서 활동하면서 고군분투했던 전쟁 체험 및 그가 펼친 군사 전략이나 술법들이 주목되었다.<sup>2)</sup> 또한 전쟁의 과정과 자신의 경험을 일기체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저술들 또는 전쟁을 극복할 방안과 관련하여 왕에게 올렸던 다수의 상소문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sup>3)</sup> 정탁이 직접 전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정리한 전쟁 기록들과 임란 시기의 각종 문서나 서신들을 모아 정리한 것도 남아 있어 임진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중 『임진기록(壬辰記錄)』이 최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되어 임진전쟁의 내부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sup>4)</sup>

정탁의 생애와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단행본과 문집의 해제 등을 통해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sup>5)</sup> 이밖에도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문하를 출입하되 특히 퇴계에게서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정주학 수용과 선비 정신을 사상적 측면에서 다룬 성과물도 제출되었다.<sup>6)</sup> 정탁의 시문집 『약포집(藥圃集)』 가운데

- 1) 이은상, 「충무공을 구출한 정탁의 伸救節」, 『사상계』 524, 사상계사, 1959.
- 2) 박익환, 「藥圃 鄭琢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2003; 정해은,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3)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정운, 「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 - 약포집 소개 상소문을 대상으로 -」,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 4) 정탁 저,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5)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 성심인쇄소, 2013; 남명학연구원,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6) 이상필, 「임란시 재조 남명 문인의 활동 : 약포·동강·한강을 중심으로」, 『남명학 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이정화, 「약포 정탁의 시문에 나타난 선비정신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성리학적 탐구 정신을 지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퇴계 사상과 연결 지은 것이다. 사물을 관찰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관물시(觀物詩)와 『주역(周易)』, 『춘추(春秋)』, 『예기(禮記)』 등을 읽고 지은 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선현들을 존송하며 지은 시들을 다루고, 정탁을 ‘실천하는 군자’에 귀결시키는 것이 공통된 방향이다.

반면, 정탁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그려낸 시에 대한 연구는 저조하다. 여운필과 박명숙에 의해 『약포집』 권1에 수록되어 있는 장편 5언 고시 「난후기행(亂後紀行)」이 임란을 제재로 한 가장 큰 편폭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명되고, 「번민을 달래다[排憫]」, 「굶주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다[憫饑]」와 같이 임진전쟁 당시에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참담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sup>7)</sup> 게다가 정탁의 문집에 수록된 시의 거개가 임진전쟁과 관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탁의 전쟁인식과 연관지어 검토한 예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탁이 임진전쟁을 목도하며 풀어쓴 여러 편의 시들을 통해 그의 전쟁인식 및 시대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전쟁의 한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였던 정탁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의 시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탁의 임란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문학사에서 개인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를 벗어나 문학과 전쟁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사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다. 객관적인 사료들과 전쟁 속 인물이 그려낸 문학 작품을 함께 다루어보는 것은 한 전쟁을 둘러싼 내·외적 상황을 보다 풍부하게 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연구 방법론으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박명숙, 「약포 정탁 선생의 삶과 시세계」,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 2. 약포 정탁의 전쟁시와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정탁은 1592년 4월 전쟁이 일어나 선조를 호종하다가 6월부터 분조(分朝)에 배속되어 전쟁 초기 조선군을 지휘했으며, 명군의 참전 이후에는 명군을 접대하거나 물자를 조달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명군과의 조명연합작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sup>8)</sup> 이에 그의 전쟁시는 단순히 개인의 서정적인 회한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펼쳐졌던 명군과의 연합작전, 조선군의 전쟁수행,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 등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전까지 정탁의 시는 주로 우국충정, 애민의식, 효, 선비와 같은 주제로 다루어지며 정탁이 보편적인 사대부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들을 그의 전쟁인식과 적극적으로 관련지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의 전쟁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흔을 목도하고 울분을 표출하거나 임란 후에 전쟁을 회고면서 자기반성을 담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도 외교활동 및 명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시들에 주목하였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약포집』에 수록된 시 외에 다른 기록들을 참고하였다. 먼저 정탁이 1593년 1월에 명나라 장수들을 전별하는 역할을 맡아 의주에 머무르면서 지은 시들을 모아놓은 『용만록(龍灣錄)』과 당시의 전별 과정과 대화 내용, 각 장수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그리고 정탁이 임진전쟁 동안의 각종 공문서를 엮어

8) 정탁의 분조 활동은 정해은의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대명외교활동은 남명학연구원이 집필한 『약포 정탁』, 제9장 임진왜란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예문서원, 2016)에서 참고할 수 있다.

놓은 『임진기록(壬辰記錄)』을 주된 자료로 삼았다.

### 가. 일본의 강화설에 대한 거부와 명군에 불만 담지

1593년 1월, 명나라 장수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토벌하여 평양성이 수복되고 선조가 서울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이 모조리 섬멸되지 않았고 전란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본의 강화 협상으로 명군이 회군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8월에 정탁은 왕명으로 의주에 파견되어 명나라 장수들을 전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남긴 기록이 『용만록』과 『용민문견록』이다. 『용만록』에는 평양 수복에 큰 공을 세운 명나라 장수들을 전송하며 지어준 시와 여전히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실상에 탄식하는 내용의 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직 완전히 일본의 무리가 소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군하는 명나라 장수들에게 연회를 열어주는 울분이 『용만록』 서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때 적의 잔당들이 아직 섬멸되지 않고 여전히 양변(兩邊)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민(臣民)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나는 서관(西關) 한 구석에 발이 묶여 있다가 나도 모르게 걱정과 울분으로 병이 났었다. 무릇 『송행(送行)』·『배민(排閔)』 등의 작품은 대부분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많으니, 이는 마음속에 북받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9)</sup>

앞의 대목만 보아도 정탁이 전쟁으로 고초를 겪는 백성에 대한

9)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詩序」, “時餘孽未殲, 尙據兩邊, 臣民之痛未已. 於斯時也, 琢跡滯西關一隅, 不覺憂憤成疾. 凡所以送行排閔等作, 率多痛迫之意, 蓋中心自有所激, 不能已者也.” 이하 『약포집』에 실린 시문의 번역은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 (성심인쇄소, 2013)을 따르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애정과 슬픔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정탁은 이러한 고통의 책임이 일본의 교활한 강화 협상에 합의한 명군의 퇴각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불만을 시 곳곳에 분출하였다. 먼저 전쟁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읊은 『排闥』 2수 가운데 첫 번째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진 갓옷, 야윈 말과 추위에 떠는 중,  
 천에 변방의 물색은 절로 같지 않네.  
 오랜 성가퀴는 멀리 용만의 달과 이어지고,  
 황량한 누대는 가까이 압록강의 바람을 당기는구나.  
 2년의 전란 속에 몸 먼저 늙었고,  
 천리 먼 고향은 소식마저 끊어졌다네.  
 다시 바라건대, 천자의 군사가 어느 때에 이를까나.  
 온 나라의 나쁜 기운 아직 다 걷히지 않았는데.  
 弊貂羸馬又寒僮, 物色天涯自不同.  
 古堞遙連龍塞月, 荒臺近挹鴨江風.  
 二年金革身先老, 千里鄉關信不通.  
 復望王師何日到, 一方氛氣未全空.<sup>10)</sup>

극도로 추운 날씨와 황량한 배경이 연상되는 의주의 생활을 묘사하고, 고향까지 그리운 상황을 토로하였다. 마지막 구에서 ‘천자의 군사[王師]’, 즉 명군의 지원이 다시 이를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표출하면서도 아직 일본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약포집』 속집에 실려 있는 다른 시에서도 “왜구의 전란 지금도 시름 겹고 참담하여, 오직 천자의 군사 다시 오기만을 날마다 바란다네.[寇亂至今愁更慘, 王師唯日望重臨]<sup>11)</sup>”라 하며 위의 시와 같은 맥락으로 명군의 철군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원조를 희망하는

10) 鄭琢, 『樂圃集』 권1, 「龍灣錄·排闥」.

11) 鄭琢, 『樂圃集』 속집 권1, 「次眞一子」.

마음을 드러냈다. 뒤이어 자신의 벗에게 번뇌를 토로하며 쓴 시에도 정탁의 입장이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어 살펴볼 만하다.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어,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가 계책을 다하였네.  
 두세 번 군사를 나누어 보내니,  
 백만 군사 곰처럼 용위하였지.  
 칼 빛은 하늘 끝에 이어지고,  
 위풍을 바다 모퉁이에 떨쳤네.  
 삼경에서 한 번 승리하자,  
 팔도가 남김없이 수복되었네.  
 나라를 재건한 은혜 건줄 곳 없고,  
 회생시켜 준 덕은 끝이 없다네.  
 어찌하여 적이 아직 섬멸되지 않았는데,  
 이리 쉽게 서둘러 회군하는가.  
 팔읍에 적들이 아직도 웅거하고 있으니,  
 외로운 군사 지탱하지 못할까 두렵네.  
 皇上憂藩服, 忠良罄畫規.  
 二三分寄闔, 百萬擁如羆.  
 劍氣連天際, 風稜振海陲.  
 三京得一捷, 八路舉無遺.  
 再造恩無競, 回生德罔涯.  
 云胡未殲種, 容易遽班師.  
 八邑猶雄據, 孤兵恐莫支.<sup>12)</sup>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명군의 은혜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일본을 토벌하지 않은 시점에서 회군하는 명군을 향해 일본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았다고 판단하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전세가 고립되고 위태로워져 병사들에게 화가 닥쳐올

12) 鄭琢, 『藥圃集』 속집 권1, 「排憫示友生」.

것을 두려워하였다. 정탁은 왜군과의 강화설이 돌 때부터 명군의 회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차자(劄子)를 작성하기도 했다.

근자에 조정에서 왜군과의 강화설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아마도 부득이한 중에 나온 계책일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왜군은 간교하고 거짓이 많은지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저런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형세만 놓고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왜군이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를 퇴각시킨 다음 국경 밖으로 나가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밀어닥쳐서 위협하듯이 ‘우리와 화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는 겁을 쥐 맹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니, 화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능히 예의 있게 말을 해도 왜군의 속내를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겁을 쥐 맹약을 맺고자 한다면 어찌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한 번의 화친을 들어준다면, 장차 닥쳐올 화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sup>13)</sup>

정탁은 우선 일본의 화친 제안을 믿지 않았다. 또한 퇴각하지 않고 되려 겁을 주면서 맹약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이것이 초래할 화를 예측하였다. 이어서 일본에게 보낼 예시 답안까지 적었는데, 그 내용은 명나라 핑계를 대며 황조의 명이 내려와야 처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무릇 화친은 양국 모두가 이롭자고 하는 것인데, 철병하지 않은 채로 화친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니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sup>14)</sup>

13)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鈔草稿二』, “伏以朝廷近有與賊許和之說, 蓋亦出於不得已之計也. 以臣之見, 則倭奴譎詐, 不可爲信, 不必多辭, 只以事勢言之. 則賊若捲甲退兵, 出在境上而云爾, 則猶之可也. 擁衆壓境, 若威脅然曰: ‘爾能與我和歟?’ 云, 則是實怯盟, 非可以爲和者也. 彼雖能以禮讓爲辭, 賊情難信, 況以怯盟, 終能有成乎? 我若一聽其和, 則將來之患, 有不可勝言?” 이하 『임진기록』의 원문과 번역은 정탁 저,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을 따랐다.

14) 앞의 글, “夫和者兩國之所以爲好者也. 兩國爲和禮讓爲先, 而信義并寓於其間. 擁衆臨境, 未有撥兵之舉, 如是而求和, 是甚底道理耶?”



정탁은 또 당시 명군이 강화 협상에 몰두하는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것 네 가지’ 조목을 뒤이어 나열하였는데, 그중 두 번째 조목이 명군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명나라 군사에게 전심을 다해 왜군을 토벌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본국의 병력은 기강과 규율이 없어서, 멀찍이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먼저 무너집니다. 병란을 거치면서 더욱 약해져 왜군을 대항할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삼도(三都)를 수복한 것은 모두 명나라 병사의 힘이오니,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명나라 병사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왜군을 섬멸하기 결단코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경략사와 제독 두 사람 앞으로 급히 사유를 갖추어 서찰을 보내거나 이자(利咨)하여 간곡한 성심을 다 펼쳐 보인다면,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돌리고 한데 힘을 합쳐 전진함으로써 흉악한 갈날을 소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sup>15)</sup>

이때 마침 그와 같은 의견을 담은 다른 사람의 글이 이미 올라와 있어 정탁의 차자는 무산되었지만,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불신을 지니며 명군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당시 강화를 반대하였던 대부분 신료들의 입장이었다.<sup>16)</sup> 그들은 이후에 단순한 강화 반대론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명 조정에 강화 교섭의 진상을 직접 고발하거나 명과 일본과의 교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이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sup>17)</sup> 반면 정탁은 단순한 강화 반대론에 그쳤는데, 이는 명군의 접대를 도맡은 특수한 역할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5)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敘草稿一」, “二曰, 乞請唐兵, 專心剿討。本國兵力, 漫無紀律, 望風先潰。自經兵亂, 尤甚單弱, 了無抗賊之勢。三都之復全, 是天兵之力, 當此事勢岌岌, 非賴天兵, 則決難滅賊。伏望經略提督兩大人前, 須急俱由稟帖或移者, 極其誠懇, 庶見回心諸將, 合勢前進, 蕩掃兇鋒。”

16)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3~76면.

17) 위의 논문, 146면.

한편, 정탁의 일본과의 화친에 대한 거부와 경멸은 명나라 장수도양성(陶良性)에게 지어준 작별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다루어볼 만하다. 총 2수 중 두 번째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명이 증명하니 누군들 의심하리오.  
섬 오랑캐와 원수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네.  
선영이 도굴되어 온갖 신이 분개하니,  
이 왜적 잇을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안다네.  
오랑캐와의 화친은 말이 이치에 닿지도 않으나,  
하늘에 고할 길 없으니 누굴 통해 하소연할까.  
성황의 신묘한 지감 태양과 같으니,  
만리 밖 백성들의 심정 훤히 살펴보시기를.  
證在神明孰致疑，島夷讐我至於斯。  
先塋見掘百神憤，此賊難忘三尺知。  
與虜連和言不近，籲天無路訴因誰。  
聖皇神鑑如天日，萬里群情明見之。<sup>18)</sup>

1592년에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이 도굴된 일을 지적한 내용이다. 위 시는 정탁이 1599년에 지은 것인데, 그는 용만으로 사신을 가기 전부터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를 겸하고 있었고, 이후 1594년에 다시 사직서 제조에 임명되어 사직단 재건에 노력을 기울이며 나라의 운명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였다.<sup>19)</sup> 이에 정탁은 위 시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화친이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명나라에서도 우리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이치에 맞는 결론을 내려줄 것을 바랐다. 위 시의 첫 번째 수에서도 “온 나라가 모두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18) 鄭琢, 『藥圃集』 권1, 「又呈別韻[二首]」.

19)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叢草稿二』, 233~241면과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1594), 9월 10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누가 왜놈과 통교하자고 함부로 말하는가.[擧國皆思天不共, 何人枉說與倭通.]”라고 하며 강화설에 극도로 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강화를 협상하고 철수를 선택하였고, 정탁은 이들을 전별하기 위해 의주로 차출되었다.

#### 나. 명군에 대한 공적 현양과 대명 의식

비록 명군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남아있지만, 전별사로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연회를 베풀어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며 실제로 평양성 수복이 명군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정탁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명나라 장수들에게 예를 다하였다. 이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등에게 일본을 평정해준 데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시를 두 수 씌 지어 올렸다. 먼저 송응창에게 올린 시를 보기로 한다.

남은 빗장 부수듯 난리를 평정하니,  
하늘이 굽어보듯 신병이 도운 것이라네.  
삼한의 군읍은 圖籍을 되찾았고,  
팔도의 생민들은 침몰을 면했네.  
번방이 지금까지 외적을 잘 방어했으니,  
완악한 왜구 이제부터 감히 나쁜 마음 먹겠는가.  
황제의 은혜 전례 없이 이렇게 클 줄이야.  
문노니, 동해와 견주어 어느 곳이 깊은가.  
戡亂淸氛圯老鈴, 陰兵助順若天臨.  
三韓郡邑還圖籍, 八路生靈免陸沈.  
藩翰至今能禦外, 頑獍從此敢生心.  
皇恩曠古知如許, 爲問東溟孰淺深.

원수의 위엄과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한데,  
깃발 들고 동으로 오니 천군만마 같았네.  
태백성 별빛은 검 기운에 이어지고,  
공산의 학 울음은 깃발의 펄럭임을 도왔네.  
강남에서 직명 받들어 시행할 즈음에  
회우에서 지휘 속에 흉악한 놈들 제거하였지.  
짐승 같은 마음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낸 것이 바로 만전의 공이 아니던가.

元戎威武薄層空，一幟東來萬馬同。  
太白星芒連劍氣，公山鶴唳助旗風。  
江南奉勅施爲際，淮右除兇指顧中。  
莫道獸心難可信，驅除不是萬全功。<sup>20)</sup>

‘황은(皇恩)’이 너무나 커서 동해와 건주어 무엇이 더 깊은지를 헤아려보고, 그들의 원조를 ‘천군만마’에 비유하며 칼날이 번쩍이고 깃발이 휘날리는 명나라 군대의 웅장한 자태를 묘사하였다. 평양성을 수복하게 해주고 팔도의 침몰을 면하게 해 준 공을 명군에게 돌리며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전란을 다스리고 일본을 잘 막아내 준 공로를 드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송응창을 달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송응창은 자신이 평양을 돌파하고 조선 팔도를 수복한 공로가 있는데, 선조가 직접 전송하지 않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전별연을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워 애를 먹은 것이 『용만문견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전별 행차에 이르러서도 선조가 감사의 글 한 마디를 보내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탁이 위와 같은 시를 써서 보낸 것이다. 『용만문견록』에는 명나라 장수마다 각각의 인적 정보와 그와 있었던 일화, 자신의 평가 등이 담겨있는데, 이 중 ‘송응창’을 다룬 대목의 마지막에 “시랑 송응창에

20)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上宋經略幕府[二首]」.

게 올리는 제2편의 시 말단에 일본과 강화하고 병사를 퇴각한 것 등의 일을 은근히 언급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싶었으나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대개 옛사람들이 시를 빌려 은근히 풍자한 뜻이고, 역시 그의 분노를 부추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sup>21)</sup>라고 진술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두 번째 수에서 마지막 구에 해당하는 “짐승 같은 마음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낸 것이 바로 만전의 공이 아니던가.[莫道獸心難可信, 驅除不是萬全功.]”는 짐승과 같은 일본과 화친하여 끝까지 몰아내지 않은 상대방을 풍자한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이어송에게도 그의 요구에 따라 공적을 현양하는 시를 지어 바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九地の 진법과 기이한 책략의 십만 병사에,  
 변방에서 예를 갖추며 행차 깃발을 바라보았네.  
 해대에 바람 맑아 속세의 티끌 쓸어내고,  
 교외에 비 넉넉하여 초목이 무성해졌네.  
 노래하고 칭송해도 성대한 덕 형언할 수 없는데,  
 단사호장으로 어찌 작은 정성을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세상에 명성을 남겨 천억 년을 기약하리니,  
 굳이 절벽 깎아 성명을 새길 필요 없다네.  
 九陣奇韜十萬兵, 左韓加額望行旌.  
 風清海岱塵氛廓, 雨足郊原草木榮.  
 歌頌未能模盛德, 簞壺那得表微誠.  
 流芳宇宙期千億, 不用磨崖勒姓名.

천병이 진동하여 동방을 뒤흔드니,  
 바다 건너온 왜놈들 마음대로 못하네.  
 팔도에 어찌 왜놈의 잔당을 남겨 두랴.

21) 鄭琢, 『藥圃集』 권6, 『龍灣聞見錄』, “呈侍郎第二篇末段, 暗及聽和退兵等事, 欲其不諱其實, 而語未瑩白者, 蓋古人假詩微諷之義, 而亦不欲致激其怒也云爾.”

삼경은 일찍이 잠깐 사이에 수복하였다네.  
 신묘한 공은 영원히 산하와 더불어 웅장하고,  
 큰 덕은 또 조물주를 따라 남으리라.  
 우리나라에서 천년토록 뼈에 새기리니,  
 가을바람 석양에 몇 번이나 머리를 돌릴까.  
 天兵震疊撼東陬, 駕海鯨鯢不自由。  
 八邑肯容餘孽在, 三京曾得片時收。  
 神功永與山河壯, 大德還從造化留。  
 日域千年銘到骨, 西風殘照幾回頭.<sup>22)</sup>

송응창의 경우와 유사하게 명군의 위세를 높이고 평양성을 수복한 공로를 칭송하였는데, 이여송의 경우는 찬양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 상대방의 ‘성덕(盛德)’은 전별 잔치에서 베풀어주는 음식과 노래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그 명성이 천억 년이나 전해질 것이라 하였다. 또 ‘신묘한 공[神功]’, ‘큰 덕[大德]’을 천년토록 뼈속에 새길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앞서 다루었던 명나라 장수 도양성의 공적을 높인 시도 있는데, 이여송과 송응창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포착되어 눈여겨볼 만하다. 이 시에 대해 ‘운격(韻格)이 저속하다’는 혹인의 평가에 ‘꾸미지 않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기록한 것’<sup>23)</sup>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총 5수 가운데 첫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를 보기로 한다.

원수가 막 한양성의 동쪽에 들어오니,  
 김 기운 웅장하여 소매 속에 용이 우는 듯했네.  
 왜놈들은 앞 다투어 제각기 달아나고,  
 도산성의 소굴은 이미 완전히 텅 비었다네.

22)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上李提督幕府[二首]」.

23) 鄭琢, 『藥圃集』 권1, 「上通判陶爺行臺[并序]」, “應之曰: ‘詩, 言志而已, 流出性情, 貴在不浮其實. 古詩三百篇中, 至如民間男女之歌, 聖人採之, 至錄風詩之正經, 其意有在.’”

호남 영남 삼천리에 바람 맑고,  
 동쪽 남쪽 구만리 하늘에 기운이 트였네.  
 가장 기쁜 건, 어진 장수가 협력에 참가하여,  
 신공에 힘입어 삼한이 재건된 것이라네.

元戎纔入洛城東，袖裏龍鳴劍氣雄。  
 倭磴崑崙先自遁，鳥山巢窟已全空。  
 風清湖嶺三千里，氛豁東南九萬穹。  
 最喜仁賢參協力，三韓再造荷神功。

왼쪽으론 바다 오른쪽으론 유사까지 미쳤으니,  
 천하에 누가 한집안이 아니라고 하리오.  
 천지의 조화는 예로부터 대운을 따르니,  
 요사스러운 기운이 어찌 좋은 때를 혼탁하게 할 수 있으랴.  
 무공은 이로부터 난리를 평정한 것에 돌아가고,  
 문덕은 예전처럼 태평함을 회복했다네.

승전보가 이미 봄날 따라 따뜻하니,  
 역참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도다.  
 左漸于海右流沙，天下誰云非一家。  
 元化從來隨大運，妖氛那得溷亨嘉。  
 武功自此歸戡定，文德依前復泰和。  
 奏捷已從春日暖，驛亭無處不芳華。<sup>24)</sup>

마찬가지로 나라를 재건하게 해 준 상대방의 공을 칭찬한 내용인데, 흑인이 ‘음란하고 어지러우며 사조가 너무 저속하여 중국의 박사(博雅)한 사람의 눈을 더럽힌다.’<sup>25)</sup>라고 한 까닭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의 7, 8구 ‘승전보가 이미 봄날 따라 따뜻하니, 역참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도다.[奏捷已從春日暖，驛亭無處不芳華.]’ 이 대목 때문인 듯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따듯

24) 鄭琢, 『藥圃集』 권1, 「上通判陶翁行臺[并序]」.

25) 위의 글, “右什草既成，客有質之者曰：‘哇沸之音，不入於師曠之門。今此詩章，辭藻太鄙，豈合輕穢中朝博雅之眼乎.’”

한 봄날에 비유하여 난리가 수습된 평온함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日暖’과 ‘芳華’를 두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연상케 한다고 여겨 음란하고 저속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후기 문인 신국빈(申國賓, 1724~1799)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김종직의 죽지사(죽지사)를 두고 “근후한 자가 또한 다시 이러한 일을 했겠는가.”<sup>26)</sup>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앞의 송응창과 이여송의 전별시와 달리 ‘꾸밈이 적으면서 성정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상대방의 행적을 영탄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위의 시가 총 5수이며, 이어서 그에게 보낸 작별시 2수와 짧은 율시 3수도 실려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정탁과 도양성 사이의 남다른 친분에도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정탁은 이와 같이 명나라 장수들에게 자신의 울분을 드러내지 않고 찬양 일색의 시를 지어 바쳤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였다. 송응창과 이여송에 대한 전별시를 담은 『용만문견록』 서문에서도 “이는 명나라 장수가 오고간 일들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하는 것이 나름대로 고사도 있거니와, 하물며 이처럼 나라가 재건되는 시기에 동쪽으로 온 명나라 장수들의 말과 행적들이 국가에 관계됨이 있음이겠습니까? 감히 예삿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삼가 이를 기록하여 바치니, 황공한 마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sup>27)</sup>라는 언급이 보인다. 정탁은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임진전쟁의 상황 속에서 명나라 장

26) 申國賓, 『太乙庵集』 권2, 『凝川教坊竹枝詞八章(並小叙)』, “余寓南山谷中, 偶閱豹翁詩, 有愁州竹枝曲八絕, 謾次其韻, 爲凝川教坊竹枝詞. 蓋竹枝始於吳楚, 而多哀怨. 一名小秦王, 夏統所謂東吳土地間曲也. 余猶入定老頭陀, 爲爾馨語, 不幾於宋廣平鐵肝氷心吐出梅花賦香艷耶. 未及淨寫, 而適於燈下, 見古邑誌中有凝川教坊竹枝詞八絕, 卽畢翁之題贈梁娃者也. 恍如黃太史歌羅驛夢中故事. 仍笑曰 ‘謹厚者亦復有之耶.(밑줄)’”

27) 鄭琢, 『樂圃集』 권6, 『龍灣聞見錄』, “蓋上國往來, 隨聞見以錄, 自有故事. 而況此再造之際, 東征將土言語事蹟, 有關國家者, 不敢以餘事爲視, 謹錄以進, 不勝惶恐焉.”



수들의 말 하나와 행적 하나가 향후 대명 외교 및 국제 정세에 긴요하게 작용할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 그는 임진전쟁의 중심에서 명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했기에 예민한 시대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행여나 명나라와의 관계를 그르칠까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데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 3. 약포 정탁의 전쟁인식이 지니는 의미

이상으로 정탁이 자신의 번뇌를 기록하거나 명군 군사지휘관을 상대로 지은 시들을 통해 그가 견지하였던 전쟁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임진전쟁에 대한 조선의 군사정책 및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소탕할 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올린 수많은 상소문과 『임진기록』 속 전쟁 문서 더미에서 확인된다. 심지어 72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남쪽으로 내려가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청하는 차자를 두 번 올렸다가 모두 거절당했다. 이때에도 군사작전을 제안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다.

정탁의 이러한 전쟁인식은 보편적인 사대부들과 다른 면모로서 부각된다. 임진전쟁을 체험한 다른 문인들의 시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체로 전후 참상의 묘사나 무능한 지배층 및 군사들에 대한 비판, 일본에 대한 적개심, 우국충정, 애민의식, 회한과 절망 정도로 압축된다.<sup>28)</sup> 정탁의 시세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국운을 염려하고

28)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尹斗壽·鄭文學·權驛·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영금정, 「壬辰倭亂과 嘉靖倭亂 體驗 戰爭詩 主題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백성의 참상을 열거하는 시를 통해 우국애민의 정서를 특징으로 삼았다.<sup>29)</sup> 임진전쟁을 소재로 한 시들은 사대부 관료, 장군, 포의(布衣), 포로 등 시인이 처한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의병활동을 했던 이정암(李廷菴, 1541~1600)의 경우에는 전장의 일선에서 목격한 장수들의 나태를 심각한 문제로 삼고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병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던 노인(魯認, 1566~1622)은 전쟁 상황을 눈에 보이듯 묘사하며 장수로서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내용의 시를 남겼다.<sup>30)</sup> 이들의 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서울 소식 들으니,  
임금의 행차가 매번 아침을 경계한다 하네.  
요사스러운 기운은 비록 잠시 그쳤지만,  
임금의 치욕 아프다가도 새롭구나.  
장수들은 가림주구 급선무로 삼으며  
밤낮으로 친히 교외에 나가 손님맞이하네.  
나라의 운명을 풀 길이 없는데,  
고기 먹는 자들 누구던고.  
聞說京城事, 鑾輿每戒晨。  
妖氛雖暫息, 主辱痛方新。  
將帥誅求急, 郊迎日夕親。  
無由紓國步, 肉食問何人.<sup>31)</sup>

골짜기 변방이 교통의 굴과 가까우니,  
병란의 먼지에 군사 옷 헤졌네.  
달 밝은 밤에 오랑캐 피리 소리 애달프고,

29) 여운필의 앞의 논문에서는 '우국애민', 박명숙의 앞의 논문에서는 '애국인민'으로 칭하여 정탁의 전쟁시를 분석하였다.

30) 장미경, 위의 논문, 8~53면 참고.

31) 李廷菴, 『四留齋集』 권3, 「起夫有和, 復次之·四疊」.

이른 가을에 전진 같은 구름 높구나.  
 열사는 긴 칼 두드리고,  
 장군은 육도를 어루만지네.  
 호남의 옛 문물,  
 오래도록 비린내 나게 하지 않으리.  
 峽塞隣蛟穴, 兵塵弊戎袍.  
 月明羌笛怨, 秋早陣雲高.  
 烈士彈長劍, 將軍按六韜.  
 湖南舊文物, 且莫老腥臊.<sup>32)</sup>

위의 첫 번째 시는 이정암이 상진(尙震)에게 화운한 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픔을 되새기며 패인을 복기한 내용이고, 두 번째 시는 노인이 호남에서 소의장(昭義將) 임환(林權, 1561~1608)의 진중에 있으면서 함께 의병활동을 했던 진경문(陳景文, 1561~1642)에게 부친 것으로, 오랜 전쟁으로 군사들의 심신이 지쳐있지만 호남 땅을 일본으로부터 수호하여 그들의 비린내를 씻어낼 것을 다짐한 내용이다. 두 시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 몸을 부딪쳐 싸운 전쟁 체험을 담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휘를 한 정탁의 시와는 결이 다르다. 전자는 칼과 총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모습을 더욱 핏진하게 묘사하거나 비장하게 결의를 다진 것이고, 후자는 명나라 군대의 지휘관들을 상대로 외교를 수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쟁 과정을 살피는 동시에 명, 일본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인식한 것이다. 물론 정탁도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동래부사 시절, 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랐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四月十五日」이나,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기성(箕城)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경험한 평양의 참혹한 실태를 자세히 풀어낸 「次東坡海州石室韻」 등<sup>33)</sup>과 같은 시들을 남기

32) 魯認, 『錦溪集』 권1, 「昭義將陣中, 寄陳汝郁[刻湖]」.

33) 장미경, 앞의 논문, 18~28면 참고.

기도 했지만,<sup>34)</sup> 앞서 다루었던 정탁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 정탁은 이들과 달리 전쟁을 둘러싼 외교관계에 긴밀하게 접해 있었고, 그 상황을 일선에서 직시한 내용의 시를 지었다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정탁은 조선 조정의 최고 정책입안자이자 시행자로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동시에 임진전쟁 전에 명나라 사신을 두 차례 다녀온 경험으로 인해 전쟁 당시에 명군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아 그들의 정황을 파악하고 국제 정세에 맞게 대응하였다. 이에 그는 일본과의 강화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자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결국 화친을 맺고 퇴각한 명군에 불만을 시를 통해 은근히 표출하였다. 그러나 전별사의 신분으로 의주에 파견되자 이들의 심중을 간파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게 최대한 배려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시를 지어줌으로써 향후 대명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명나라에 대한 정탁의 이러한 대응은 당시 임진전쟁이 조선과 일본만의 것이 아닌 명-조선-일본의 국제 전쟁이었음을 시사한다. 임진전쟁이 국제 전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전개된 명-조선과의 갈등<sup>35)</sup> 및 전쟁 이후 재편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sup>36)</sup> 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는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을 보아도 국제 전쟁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명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명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그의 관심과 촉각은 명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분조를 이끄는 위치에서 차자를 올리고 전별사라는 위치에서 시를 쓰며 그것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그는 명과의 관계가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일

34) 정탁의 시세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다루어졌던 「난후기행(亂後紀行)」, 「번민을 달래다[排閔]」, 「몹주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다[憫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5)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경태, 앞의 논문.

36) 한명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본 임진왜란-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명·청·일 관계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09;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본의 섬멸에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명나라와의 외교에 민감하였고, 이것이 『약포집』을 비롯하여 『용만록』, 『용민문견록』, 『임진기록』 등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그의 전쟁인식 및 시대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본다면 정탁의 전쟁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시를 짓게 된 내막을 포착할 수 있어 전쟁에 처한 지식인의 사유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 4. 결 론

임진전쟁은 역사적 전환기라 불릴 만큼 조선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유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쟁이다. 본고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정치·군사 분야에서 크게 활약한 약포 정탁에 주목하였다. 정탁에 대해서는 주로 그의 군사 활동이 조명된 반면,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탁이 임란전쟁 시기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다루어 보았다. 그가 펼쳤던 외부적인 활동의 결과와 그 의미가 아닌, 내부적인 면을 파고들어 그가 전쟁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강한 적대심을 품은 상태에서 화친 협상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임금에게도 이를 저지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였으며, 명군이 결국 강화를 맺은 일에 아쉬움과 불만을 담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맞게 명군을 잘 달래어 전송하는 데에 애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탁이 남긴 여타 전쟁 기록, 문서들을 함께 검토하며 정탁의 전쟁시 속의 이러한 전쟁

인식 또는 시대 인식을 포착해낼 수 있었다. 특히 『임진기록』은 조선군과 의병, 명군 사이의 장계들을 통해 각 군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 전쟁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탁의 전쟁시를 ‘전쟁’과 ‘문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 성과가 되는 동시에 본고에서 목표한 ‘전쟁과 문학과의 연계’에 다가간 시론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정탁의 문학을 군사 외교가로서의 위상과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군사사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 전쟁 문학의 지평을 넓힌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7,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약포, 정탁, 임진전쟁, 외교, 군사, 전쟁시

## <참고문헌>

### 1. 저서

-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 성심인쇄소, 2013.  
<http://uci.or.kr//G901:A-0006481914@N2M>
- \_\_\_\_\_,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남명학연구원,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 동북아역사재단,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09.  
<http://uci.or.kr//G901:A-0007728825@N2M>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http://uci.or.kr//G901:A-0008565491@N2M>

### 2. 논문

- 김경록, 「임진기록 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19.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701:B-00101012500@N2M>
- 김낙진, 「藥圃 鄭琢의 程朱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http://uci.or.kr//G901:A-0002428716@N2M>
- 김정운, 「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http://uci.or.kr//G901:A-0003331778@N2M>
-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 상호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22092@N2M>
- 박명숙, 「약포 정탁 선생의 삶과 시세계」,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http://uci.or.kr//G901:A-0003573053@N2M>
- 박익환, 「藥圃 鄭琢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2003.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http://uci.or.kr/I410-ECN-0102-2009-810-002380169@N2M>

영금정, 「壬辰倭亂과 嘉靖倭亂 體驗 戰爭詩 主題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11052-000000230894@N2M>

이상필, 「임란시 재조 남명 문인의 활동 : 약포·동강·한강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http://uci.or.kr/I410-ECN-0102-2009-150-005717854@N2M>

이은상, 「충무공을 구출한 정탁의 伸救節」, 『사상계』 524, 사상계사, 1959.

<http://uci.or.kr/G901:A-0000039556@N2M>

이정화, 「약포 정탁의 시문에 나타난 선비정신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http://uci.or.kr/G901:A-0004079349@N2M>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尹斗壽·鄭文孚·權필·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http://uci.or.kr/G901:A-0005155497@N2M>

장학근, 「水軍統制使 李舜臣과 右議政 鄭瑑」, 『이순신연구논총』 11, 순천향대학교, 2009.

<http://uci.or.kr/G901:A-0002724136@N2M>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약포집』 소재 상소문을 대상으로-」,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http://uci.or.kr/G901:A-0003573052@N2M>

정혜은,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http://uci.or.kr/G901:A-0003712414@N2M>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http://uci.or.kr/G901:A-0002964430@N2M>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http://uci.or.kr/G901:A-0003563187@N2M>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Imjin War through the war poetry of Yakpo Jeongtak

Choi, Go-gyeong

Yakpo Jeongtak was a man who actively engaged in military and political activities for the country during the Imjin War. Due to his great exploits, the prior studies mainly dealt with war strategies or tactics. The study on his activities was done in ideological aspect due to the status of Toegye, Nammyeong's disciple and the works that showed and Neo-Confucian study. But many of the war poetry he left behind were relatively not enlightened, and only a few of his works were used in analysis of the world of his poetry. Thus, In this paper, we took a look at the perception of the age of Yakpo, which looked at the Imjin War, focusing on his war poetry of his collection of works, the book named 'Yakpojip'(the collection of Jeongtak) and records he left behind. He was objectively recognized the situation of the Imjin War, which was characterized as an international war, and how great the participation of the Ming soldiers and their combined opera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mjin War. He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secretly expressed his dissatisfaction with Ming, who eventually reached a negotiated settlement and retreated, but as a farewell envoy, he listened to their demands and wrote poetries praising their exploits. Yakpo, the chief policy maker and implementer of the Joseon Dynasty, identified the situation of Ming soldiers and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is poetries were sensitive to diplomatic relations centered on the Ming, unlike other war poetries of the same time. It is hoped that such research, which combines the war poetry with the perception of war by a person,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military history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bination of "literature"

and "war" instead of the existing study of literary history that focused on individuals.

Keywords : Yakpo, Jeongtak, Imjin War, diplomacy , military, war poetry